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과 5월1일경기장개건현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조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후죽순처럼 일떠선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을 바라보시며 공사장전역에서 집단적 경쟁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는 속에 놀라운 건설속도, 조선속도가 창조되고 있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설이 다그쳐지는데 맞게 지폐식물과 수종이 좋은 나무심기, 구획도로와 걸음길조성을 계획적으로 동시에 밀고나감으로써 장마철전으로 주변정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

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5호동과 9호동의 여러 살림집들에 들리시여 내부구조가 살림살이에 편리하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이 당에서 비준해 준 설계의 요구대로 시공을 잘하고 있는데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펄펄 휘날리는 붉은 기발들과 곳곳에 세워진 호소성이 높은 직판물들, 힘있는 방송선전으로 들썩이는 건설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면서 분위기가 좋다고, 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비, 기적창조의 근본원칙은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시키는데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사상전, 선전선동의 뛴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올해 당창건기념일까지 건설을 완공하는 것은 당에서 과학자들과 한 약속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단위들에서 대상별, 단계별 공사과제를 일정계획대로 밀고나감으로써 위성과학자거리를 제기일에 훌륭히 일떠세우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5월1일 경기장개건현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경기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공사정형을 구체적으로 조례하시고 개건을 다그치는 데서 나서는 가르침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설자들이 말은 대상들마다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 있는데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5월1일경기장을 세상에 자랑할만 한 현대적인 경기장으로 개건하자면 주체적이면서도 세계적인 식견과 안목을 가지고 공사를 창조적으로, 혁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개건에서 힘을 넣어야 할 대상들에 대하여 일일이 지적해주시면서 특히 관람석, 경기장바닥, 각종 봉사시설들을 손색없이 잘 꾸려야

5월1일경기장을 주체적인 건축술이 집대성된 체육시설로 전변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설에서 설계뿐 아니라 시공도 주체가 명백히 살아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관람석의

자와 관람홀, 계단부분의 색갈을 공화국기를 상징하는 붉은색, 푸른색, 흰색으로 처리하면 경기장의 면모가 이채로워질 것이라고 하시였다.

5월1일경기장을 웅장화려하고 산뜻하면서도 깨끗하게 개건하자면 건설자들이 모든 요소요소에 자기들의 뜨거운 애국심과 깨끗한 량심을 바쳐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5월1일 경기장개건을 올해 당창건기념일까지 끝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건설자들이 당중앙의 의도대로 공사를 제기일에 질적으로 완공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제863군부대와 조선인민군 해군 제167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오중희 7연대장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제863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군부대가 맡고있는 전투임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작전계획을 검토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부대의 작전계획문건들을 주의깊게 보아주시면서 적

들의 해상작전능력을 비상히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파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부대에서 전투훈련을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강도높이 진행함으로써 모든 전투원들을 다병종화, 다기능화된 진짜배기 싸움군, 백두산호랑이들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부대의 후방사업실태에 대하여서도 자세히 묵론하시고 부대의 특성에 맞게 군인생활을 더욱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파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부대의 후방사업실태에 대하여서도 자세히 묵론하시고 부대의 특성에 맞게 군인생활을 더욱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파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당중앙은 조선인민군 제863군부대를 대단히 중시한다고 하시면서 군부대가 조선로동당의 선군혁명도를 앞장에서 만들어나가는 혁명의 기동, 주력군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오중희 7연대장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해군 제167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수중 종합훈련실에서 어뢰돌격훈련을 비롯한

여러가지 실내훈련을 보신 다음 잠수함 748호의 내부격실들을 돌아보시고 직접 실동훈련을 승선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잠수함 748호의

해병들이 훈련을 잘하였다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당중앙은 잠수함련합부대들을 대단히 중시한다고 하시면서 군부대의 사운준비 완성과 잠수함들의 수중작전능력을 비

상히 강화하고 기지를 현대화, 요새화하는데서 나서는 파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부대의 식당,

잠수함 730호 해병들의 병실, 교양실들을 돌아보시면서 해병들의 생활을 보살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군부대

장병들이 당의 선군혁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잠수함 730호와 748호에 쌍안경과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부르며 격정의 눈물을 흘리는 해병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손을 저어 답례하시였다.

본사기자

## 위대한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경축 중앙보고대회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회에 참석하시였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경축 중앙보고대회가 18일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대회에는 조선로동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들,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순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과 우렁찬 박수소리가 터져올라 장내를 진감하였다.

종합보고대회 개회를 최태복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선언하였다.

대회는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

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김기남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백두의 전설적위인을 조선로동당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 대행운의 날을 맞으며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 같은 마음을 담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였다.

그는 장장 반세기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천재적인 사상리론과 탁월한령도로 조선로동당을 이끄시여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세기적인 전변을 안아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혁명업적은 조국청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혁명적

열의에 넘쳐있었다.

대회는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본사기자

# 고 귀 환 유 산, 자 위 의

세월은 흐르고 새대는 바뀌여도 이 나라 사람들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 미국에 의해 강요되어 신성한 강토와 수천수만 인민의 머리위에 가슴에 참화와 엄청난 재난을 들씌운 전쟁발발의 6.25를 뚜렷히 기억하고 있다.

어언 예순해가 흐른 오늘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시금 끌어오르는 것은 가령 처절한 3년간의 대결에서 어떻게 청소한 공화국이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국과 그 주종국가군대들을 타승했는가에 대한 회고이다.

갈마드는 무수한 죽음 속에서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미국의 《강대성》의 신화를 산산히 분쇄해버린 자위의 총대에 대한 생 각이다.

…총신과 포신을 꾸운 선반들과 탄창을 찍어낸 프레스를 비롯한 각종 기계 설비들이 옛 모습 그대로 보존돼 있다. 시



국방공업발전에 깃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새겨가고 있는 근로자들

—평천혁명사적지에서—

장 생산자들의 모습을 그려보시면서 나는 전승의 축포를 볼 때 그 끽보라 한송이 한 송이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말씀하셨다.

미국이 인민군대에 대한 병기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획책하고 있는 것을 간파하신 수령님께서는 전시에 평양의 병기공장을 비밀리에 군자리지하정으로 신속히 이설하도록 하시고 여차례 공장을 시찰하시면서 병기생산을 중단없이 별리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셨다.

세상에는 나라의 국방공업 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인 국가령도자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전쟁초기부터 수많은 비행기를 동원해 폭격에 기관총과 헬기, 수류탄 등이 대량생산됐다.

언제인가 현지지도의 길에서 성천군을 지나서 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한 고마루에서 군사땅을 바라보시며 전쟁시기 기관총과 박격포를 만든 군자리병기공

지금 공화국에서는 과학기술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 있으며 이것은 지식 경제강국건설을 힘 있게 추동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경제 강국을 세우는 공화국의 벅찬 현실은 어떻게 마련된 것인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최근 풍차수레 한 편 풍기기술에 관심이 있는 과학자들을 돌아보시였다.

전장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우리 당에서 과학자들에게 안겨주는 후양소의 모든 건물과 시설들을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으며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수 있게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건설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과학자들의 휴양생활과

리해인의 예지와 선견지명, 파단성 있는 조치에 의해 미국의 기도가 풍지박산났던 것이다.

미국이 인민군대에 대한 병기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획책하고 있는 것을 간파하신 수령님께서는 전시에 평양의 병기공장을 비밀리에 군자리지하정으로 신속히 이설하도록 하시며 최고사령부에 배당된 발전기도 병기공장에 보내도록 하신 수령님이시였다.

전쟁기간 미군의 그 어떤 폭격에도 끄떡하지 않았고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에 따른 긴급히 건재해 있는 군자리지하정은 막강대로 천연 요새, 천연암 폐호였다.

미국이 1950년 8월 평천리에 대한 대규모적인 폭격을 감행하고

하나밖에 없는 북조선의 병기공장을 폐파했다고 호연 장담하며 《축배》까지 들었지

주고 무기와 탄약을 더 질적으로, 더 많이 생산하도록 고무한 역사에 전례 없는 일은 위대한 수령님에 의해서만 창조될 수 있었던 것이다.

전시의 어려운 그 날 정전에 되면 우리는 초불을 켜놓고 일 할 수 있지만 지하에서 일하는 병기공장은 동자들은 기계를 돌릴 수 없게 된다고 하시며 최고사령부에 배당된 발전기도 병기공장에 보내도록 하신 수령님이시였다.

전쟁기간 미군의 그 어떤 폭격에도 끄떡하지 않았고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에 따른 긴급히 건재해 있는 군자리지하정은 막강대로 천연 요새, 천연암 폐호였다.

미국이 1950년 8월 평천리에 대한 대규모적인 폭격을 감행하고

하나밖에 없는 북조선의 병기공장을 폐파했다고 호연 장담하며 《축배》까지 들었지

그러나 줄엄한 전화의 날 최고사령관이 최고사령부를 떠나 병기공장을 시찰하면서 석수멸어지고 암반이 드리운 지하강도의 생산현장을 일일이 돌아보며 전시 생산의 전망과 방도를 가르쳐

나는 전승의 그날을 앞당기고 전선의 무기와 탄약 수요를 충당한 군자리지하병기공장은 어떻게 생겨나 전승의 축포성에 기여했다는가.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미국이 조선전쟁을 준비하면서 1차적인 공중작전대상으로 정한 것은 병기공장이었다.

그러나 전쟁초기부터 수많은 비행기를 동원해 폭격에 기관총과 헬기, 수류탄 등이 대량생산됐다.

언제인가 현지지도의 길에서 성천군을 지나서 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한 고마루에서 군사땅을 바라보시며 전쟁시기 기관총과 박격포를 만든 군자리병기공

지금 공화국에서는 과학기술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 있으며 이것은 지식 경제강국건설을 힘 있게 추동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경제 강국을 세우는 공화국의 벅찬 현실은 어떻게 마련된 것인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최근 풍차수레 한 편 풍기기술에 관심이 있는 과학자들을 돌아보시였다.

전장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우리 당에서 과학자들에게

안겨주는 후양소의 모든 건

물과 시설들을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으며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수 있게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건설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지난 1월에는 국가과학원에 대한 현지지도

휴양소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세심히 가르쳐 주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과학자후양소를 일떠세우면서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의 속도를 창조하고 있다고, 이런 속도면에서 과학자들과 약속한 남자에 휴양소를 완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그이께서는 배를 타시고 연통호를 돌아보며 휴양소자리를 잡아주시었다. 그리고 지난 1월에는 국가과학원에 대한 현지지도

휴양소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세심히 가르쳐 주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과학자후양소를 일떠세우면서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의 속도를 창조하고 있다고, 이런 속도면에서 과학자들과 약속한 남자에 휴양소를 완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그이께서는 배를 타시고 연통호를 돌아보며 휴양소자리를 잡아주시었다. 그리고 지난 1월에는 국가과학원에 대한 현지지도

휴양소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세심히 가르쳐 주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과학자후양소를 일떠세우면서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의 속도를 창조하고 있다고, 이런 속도면에서 과학자들과 약속한 남자에 휴양소를 완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그이께서는 배를 타시고 연통호를 돌아보며 휴양소자리를 잡아주시었다. 그리고 지난 1월에는 국가과학원에 대한 현지지도

휴양소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세심히 가르쳐 주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과학자후양소를 일떠세우면서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의 속도를 창조하고 있다고, 이런 속도면에서 과학자들과 약속한 남자에 휴양소를 완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그이께서는 배를 타시고 연통호를 돌아보며 휴양소자리를 잡아주시었다. 그리고 지난 1월에는 국가과학원에 대한 현지지도

휴양소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세심히 가르쳐 주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과학자후양소를 일떠세우면서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의 속도를 창조하고 있다고, 이런 속도면에서 과학자들과 약속한 남자에 휴양소를 완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그이께서는 배를 타시고 연통호를 돌아보며 휴양소자리를 잡아주시었다. 그리고 지난 1월에는 국가과학원에 대한 현지지도

휴양소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세심히 가르쳐 주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과학자후양소를 일떠세우면서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의 속도를 창조하고 있다고, 이런 속도면에서 과학자들과 약속한 남자에 휴양소를 완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그이께서는 배를 타시고 연통호를 돌아보며 휴양소자리를 잡아주시었다. 그리고 지난 1월에는 국가과학원에 대한 현지지도

휴양소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세심히 가르쳐 주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과학자후양소를 일떠세우면서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의 속도를 창조하고 있다고, 이런 속도면에서 과학자들과 약속한 남자에 휴양소를 완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그이께서는 배를 타시고 연통호를 돌아보며 휴양소자리를 잡아주시었다. 그리고 지난 1월에는 국가과학원에 대한 현지지도

휴양소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세심히 가르쳐 주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과학자후양소를 일떠세우면서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의 속도를 창조하고 있다고, 이런 속도면에서 과학자들과 약속한 남자에 휴양소를 완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그이께서는 배를 타시고 연통호를 돌아보며 휴양소자리를 잡아주시었다. 그리고 지난 1월에는 국가과학원에 대한 현지지도

휴양소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세심히 가르쳐 주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과학자후양소를 일떠세우면서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의 속도를 창조하고 있다고, 이런 속도면에서 과학자들과 약속한 남자에 휴양소를 완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그이께서는 배를 타시고 연통호를 돌아보며 휴양소자리를 잡아주시었다. 그리고 지난 1월에는 국가과학원에 대한 현지지도

휴양소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세심히 가르쳐 주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과학자후양소를 일떠세우면서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의 속도를 창조하고 있다고, 이런 속도면에서 과학자들과 약속한 남자에 휴양소를 완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그이께서는 배를 타시고 연통호를 돌아보며 휴양소자리를 잡아주시었다. 그리고 지난 1월에는 국가과학원에 대한 현지지도

휴양소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세심히 가르쳐 주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과학자후양소를 일떠세우면서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의 속도를 창조하고 있다고, 이런 속도면에서 과학자들과 약속한 남자에 휴양소를 완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그이께서는 배를 타시고 연통호를 돌아보며 휴양소자리를 잡아주시었다. 그리고 지난 1월에는 국가과학원에 대한 현지지도

휴양소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세심히 가르쳐 주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과학자후양소를 일떠세우면서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의 속도를 창조하고 있다고, 이런 속도면에서 과학자들과 약속한 남자에 휴양소를 완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그이께서는 배를 타시고 연통호를 돌아보며 휴양소자리를 잡아주시었다. 그리고 지난 1월에는 국가과학원에 대한 현지지도

휴양소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세심히 가르쳐 주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과학자후양소를 일떠세우면서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의 속도를 창조하고 있다고, 이런 속도면에서 과학자들과 약속한 남자에 휴양소를 완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그이께서는 배를 타시고 연통호를 돌아보며 휴양소자리를 잡아주시었다. 그리고 지난 1월에는 국가과학원에 대한 현지지도

휴양소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세심히 가르쳐 주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과학자후양소를 일떠세우면서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의 속도를 창조하고 있다고, 이런 속도면에서 과학자들과 약속한 남자에 휴양소를 완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그이께서는 배를 타시고 연통호를 돌아보며 휴양소자리를 잡아주시었다. 그리고 지난 1월에는 국가과학원에 대한 현지지도

휴양소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세심히 가르쳐 주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과학자후양소를 일떠세우면서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의 속도를 창조하고 있다고, 이런 속도면에서 과학자들과 약속한 남자에 휴양소를 완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그이께서는 배를 타시고 연통호를 돌아보며 휴양소자리를 잡아주시었다. 그리고 지난 1월에는 국가과학원에 대한 현지지도

휴양소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세심히 가르쳐 주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과학자후양소를 일떠세우면서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의 속도를 창조하고 있다고, 이런 속도면에서 과학자들과 약속한 남자에 휴양소를 완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그이께서는 배를 타시고 연통호를 돌아보며 휴양소자리를 잡아주시었다. 그리고 지난 1월에는 국가과학원에 대한 현지지도

휴양소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세심히 가르쳐 주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과학자후양소를 일떠세우면서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의 속도를 창조하고 있다고, 이런 속도면에서 과학자들과 약속한 남자에 휴양소를 완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그이께서는 배를 타시고 연통호를 돌아보며 휴양소자리를 잡아주시었다. 그리고 지난 1월에는 국가과학원에 대한 현지지도

휴양소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세심히 가르쳐 주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과학자후양소를 일떠세우면서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의 속도를 창조하고 있다고, 이런 속도면에서 과학자들과 약속한 남자에 휴양소를 완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그이께서는 배를 타시고 연통호를 돌아보며 휴양소자리를 잡아주시었다. 그리고 지난 1월에는 국가과학원에 대한 현지지도

휴양소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세심히 가르쳐 주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과학자후양소를 일떠세우면서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의 속도를 창조하고 있다고, 이런 속도면에서 과학자들과 약속한 남자에 휴양소를 완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그이께서는 배를 타시고 연통호를 돌아보며 휴양소자리를 잡아주시었다. 그리고 지난 1월에는 국가과학원에 대한 현지지도

휴양소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세심히 가르쳐 주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과학자후양소를 일떠세우면서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의 속도를 창조하고 있다고, 이런 속도면에서 과학자들과 약속한 남자에 휴양소를 완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그이께서는 배를 타시고 연통호를 돌아보며 휴양소자리를 잡아주시었다. 그리고 지난 1월에는 국가과학원에 대한 현지지도

휴양소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세심히 가르쳐 주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과학자후양소를 일떠세우면서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의 속도를 창조하고 있다고, 이런 속도면에서 과학자들과 약속한 남자에 휴양소를 완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그이께서는 배를 타시고 연통호를 돌아보며 휴양소자리를 잡아주시었다. 그리고 지난 1월에는 국가과학원에 대한 현지지도

휴양소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세심히 가르쳐 주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과학자후양소

# 《우리 민족이 살길은 6. 15 공동선언실천뿐이다》

역사적인 6. 15 북남공동선언발표 14돐을 맞으며 남조선의 각계총숙에서는 6. 15 북남공동선언을 리행하여 평화와 통일을 앞당길데 대한 목소리들이 힘차게 울려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남북정상이 화해와 협력, 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다짐한 6. 15 남북공동선언 14주년이 됐지만 남북의 화해협력 정신은 오늘날까지 이어지지 못해 안타깝다』고 하면서 『남북정상과 정부간에 합의한 성명과 선언의 정신을 살리는 것만이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여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7. 4 남북 공동성명과 함께 6. 15 남북공동선언, 10. 4 선언은 민족번영과 평화를 여는 길』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남북이 평화를 위해 합의한 성명과 선언의 정신을 이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이날 정의당대변인도 론평을 내고 『(정부)는 6. 15 정신을 회복해 평화와 통일을 향한 통큰 구상을 받아안는 (정부)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12일 서울에서는 정계의 여러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6. 15 남북정상회담

## 남조선 각계가 주장

14주년 기념식』이 진행되었다. 기념식에 참가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은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정책에 많은 기대를 했지만 신뢰를 회복하기는 커녕 오히려 불신과 반목이 커지고 있을 뿐』이며 『〈한〉 반도평화를 이루는 길은 오직 6. 15 선언을 실천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였다.

남조선의 여러 사회단체들, 통일운동단체들도 6. 15 북남공동선언발표 기념일을 맞으며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였다.

『6. 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15일 오후 서울에서 『6. 15 공동선언발표 14주년 기념대회』를 열고 『6. 15 공동선언을 죽인 것은 리명박, 박근혜(정권)』이라고 규탄하면서 『남북 공동행사를 불허하고 있는 (정부)를 정말 리해할 수 없다』고, 『이제라도 6. 15 공동선언을 죽인 것은 리명박, 6. 15 남북공동선언을 줄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밖에도 6. 15 공동선언 발표 14돐을 맞으며 12일 『6. 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산하 학술본부와 언론본부가 모임을 열고 각각

결의문과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결의문과 성명서는 『우리 민족이 살길은 6. 15 공동선언실천뿐이다』라고 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하루빨리 6. 15 공동선언으로 돌아가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6. 15시대에 이룩된 북파 남의 언론교류성과에 대해 언급하면서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 〈24조치〉』를 해제하고 6. 15 공동선언과 10. 4 선언 리행에 나서 전면적인 접촉과 교류협력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진행된 『통일모내기』 사업, 서울에서 진행된 『6. 15 공동선언 계승, 발전 위한 경기행사』 등 남조선 각지에서 6. 15 남북공동선언의 리행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전 통일부 장관도 참석하는데 그는 무대에 올라 6. 15 남북공동선언 발표 당시를 회상하면서 현 집권자는 7. 4 공동성명에서 전명한 조국통일3대원칙을 지키고 6. 15 남북공동선언을 줄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번에 6. 15를 맞으며 남조선에서 진행된 각종 행사들은 박근혜 『정권』의 동족대결정책을 반대하고 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리행하여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의 날을 앞당겨오려는 남녘인민들의 지향이 막을 수 없는 대세로 되고 있음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

본사기자 리경순



# 6. 15 공동선언 발표 14돐을 맞으며

원장이 발언하였다.  
이어 동포들은 통일주제의 노래들을 부르고 춤을 추면서 6. 15를 뜻깊게 기념하였다.

## 재미동포들 기념행사 진행

6. 15 공동선언 발표 14돐에 즈음하여 재미동포들이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

14일 로스엔젤레스에서 재미동포들이 6. 15 공동선언 발표 기념식을 가지었다.

기념식에서 발언자들은 온

계례가 통일에 대한 희망에

넘쳐 환호를 터치던 14년 전

6월의 감격은 아직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하면서

6월 15일은 우리 민족에게 있

어서 참으로 귀중한 날이라

## 재유럽동포들 기념행사 진행

재미동포인 터 네트신문 『민족통신』에 의하면 역사적인 6. 15 공동선언 발표 14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13일 중국 심양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

출연자들은 합창 『통일 6. 15』, 중창 『통일아리랑』, 『우리는 하나』, 『통일무지개』, 독창 『통일아 통일아』, 시랑송 『우리의 6. 15지기자』, 『6. 15통일시대를 그리며』 등을 통하여 6. 15의 가치밀에 조국 통일운동을 드세게 벌려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이어 참가자들은 우리 민족끼리 리념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강명깊게 보여주는 우리 나라 영화를 감상하였다.

6. 15 공동선언 발표 14돐기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시

##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기념행사 진행

역사적인 6. 15 공동선언 발표 14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13일 중국 심양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

출연자들은 합창 『통일 6. 15』, 중창 『통일아리랑』, 『우리는 하나』, 『통일무지개』, 독창 『통일아 통일아』, 시랑송 『우리의 6. 15지기자』, 『6. 15통일시대를 그리며』 등을 통하여 6. 15의 가치밀에 조국 통일운동을 드세게 벌려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이어 참가자들은 우리 민족끼리 리념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강명깊게 보여주는 우리 나라 영화를 감상하였다.

6. 15 공동선언 발표 14돐기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시

## 로씨야고통련에서 기념모임 진행

6. 15 공동선언 발표 14돐에 즈음하여 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로씨야고통련)가 14일 로씨야의 모스크바에서 기념모임을 진행하였다.

모임에는 로씨야고통련 성원들과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김칠성 로씨야고통련 위원장이 연설하였다.

안향진 로씨야고통련 부위

언기념 민족공동행사를 가로막을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뒤에 6. 15 남북공동선언리행을 위한 행사를 『정치적 행사』라는 미명하에 가로막고 앞에서는 그 여운이 차리았기 때문에 『6. 15 공동선언』을 그 주인이 우리 민족이 되어 민족

승지 않았다.

통일을 함께 이루어나가야 할 거례의 손길을 뿌리치고 외세와 약합하여 반공화국대결과 북침전쟁 소동에 악랄히 매달리는 남조선보수당국에게 진정으로 6. 15 남북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려는 마음이 있다고 말할수 있는가.

아무리 낯가죽이 두꺼워도

분수가 있지 흑백을 전도하며 거짓말을 밟아듯 해대는 남조선당국은 외세에 매달려 공조를 웨치며 『북핵폐기』 망발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규탄하였다.

박근혜가 대결과 전쟁 정책이라고 단죄하였다.

특히 박근혜가 『세월』 호 참사로 수백명의 어린 생명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한 때에

이처럼 확고하고 명백한 진리를 외세에 매달려 공조를 웨치며 『북핵폐기』 망발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규탄하였다.

박근혜가 대결정책을 철회하고 모든 전쟁연습을 중단하며 민간통일운동을 보장하고 『5. 24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결의문은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애국애족단체들과 군계 련대하여 싸워나가고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 이것이 과연 『신뢰』인가

옛말에 고양이가 얼굴은 좁아도 부끄러워 할 줄 안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분명 사람은 사람이나 잘못한 것에 대해 부끄러움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이동네 저동네 돌아다니며 쉴 새 없이 둘째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자들이 있으니 남조선집권자들이 바로 그러하다.

며칠전에도 남조선집권자는 통일부 장관과 『세누리당』 인물들을 내세워 그 무슨 『신뢰』 『호상존중과 화해, 협력』 이요 뭐요 하면서 귀간지러운 소리를 연방해대였다.

지난 『대선』에서 『신뢰』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해결하겠다고 흔소리를 친 박근혜는 집권하여서는 그 무슨 『신뢰프로세스』 『호상존중과 화해, 협력』 이요 뭐요 하는 것과 같은 『대북정책』 들에서 『신뢰』라는 말을 빼놓지 않고 있다.

기회만 있으면 북남간의 『신뢰』를 즐겨 외우는 남조선집권세력이 뒤에 돌아서서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못된 언행을 집안에서 만 하는 것이 무척 아쉬운 모양인지 박근혜는 『대통령』 자리에 올라앉은 후 여기저기 끌어다니면서 반공화국 대결돌음에 어간 품을 들이지 않았다.

박근혜는 지금 북파 남, 해외의 온 거래가 무엇을 바라고 요구하고 있는가를 똑바로 보고 앞뒤가 다른 말과 행동을 당장 걸어치워야 한다.

그 못된 언행을 집안에서 만 하는 것이 무척 아쉬운 모양이다.

남조선보수부대와 외세와 약합하여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를 북침핵전쟁공격연습마당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그에게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는 말인가.

조선민족의 혁명성과 첨단핵공격력은 남조선에 들어들인 핵무기는 끌어내기는 것이 비

었다면 그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것이 분명하다.

남조선보수부대는 그들의 대결정책을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인가.

리성이라는 사람들은 조선반도에서 『핵문제』가 산생하게 된 근본적인 미국의 공화국에 대한 협력위협을 중지하고 남조선에 들어들인 핵무기는 끌어내기는 것이 비

었다면 그의 자질에 문제 있는것이 분명하다.

남조선보수부대는 그들의 대결정책을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 그가 과연 조선반도에 평화를 위협하는 장본인이 누구인가 하는 현실감각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와 민주로총, 『통일광장』을 비롯한 남조선의 각계층 단체들이 12일 서울에서 집회를 가지고 통일운동을 적극 벌려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민족분열 55년 만에 우리 민족끼리를

리념으로 하는 6. 15 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고 하면서 그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남측의 련합체인 북측의 낮은 단계의

민족제작의 공통성을 인정한 6. 15 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통일지향을 분명히 밝혀 주고있다.

동족을 불신하고 적대하며 북과 남이 합의한 공동선언의 리행도 한사코 거부하는 박근혜당의 집요한 동족대결정책에 의해 북남관계는 파국의 위험에 처해 있다.

동족을 불신하고 적대하며 북과 남이 합의한 공동선언의 리행도 한사코 거부하는 박근혜당의 집요한 동족대결정책에 의해 북남관계는 파국의 위험에 처해 있다.

동족을 불신하고 적대하며 북과 남이 합의한 공동선언의 리행도 한사코 거부하는 박근혜당의 집요한 동족대결정책에 의해 북남관계는 파국의 위험에 처해 있다.

동족을 불신하고 적대하며 북과 남이 합의한 공동선언의 리행도 한사코 거부하는 박근혜당의 집요한 동족대결정책에 의해 북남관계는 파국의 위험에 처해 있다.

동족을 불신하고 적대하며 북과 남이 합의한 공동선언의 리행도 한사코 거부하는 박근혜당의 집요한 동족대결정책에 의해 북남관계는 파국의 위험에 처해 있다.

동족을 불신하고 적대하며 북과 남이 합의한 공동선언의 리행도 한사코 거부하는 박근혜당의 집요한 동족대결정책에 의해 북남관계는 파국의 위험에 처해 있다.

동족을 불신하고 적대하며 북과 남이 합의한 공동선언의 리행도 한사코 거부하는 박근혜당의 집요한 동족대결정책에 의해 북남관계는 파국의 위험에 처해 있다.

동족을 불신하고 적대하며 북과 남이 합의한 공동선언의 리행도 한사코 거부하는 박근혜당의 집요한 동족대결정책에 의해 북남관계는 파국의 위험에 처해 있다.

동족을 불신하고 적대하며 북과 남이 합의한 공동선언의 리행도 한사코 거부하는 박근혜당의 집요한 동족대결정책에 의해 북남관계는 파국의 위험에 처해 있다.

동족을 불신하고 적대하며 북과 남이 합의한 공동선언의 리행도 한사코 거부하는 박근혜당의 집요한 동족대결정책에 의해 북남관계는 파국의 위험에 처해 있다.

동족을 불신하고 적대하며 북과 남이 합의한 공동선언의 리행도 한사코 거부하는 박근혜당의 집요한 동족대결정책에 의해 북남관계는 파국의 위험에 처해 있다.

동족을 불신하고 적대하며 북과 남이 합의한 공동선언의 리행도 한사코 거부하는 박근혜당의 집요한 동족대결정책에 의해 북남관계는 파국의 위험에 처해 있다.

동족을 불신하고 적대하며 북과 남이 합의한 공동선언의 리행도 한사코 거부하는 박근혜당의 집요한 동족대결정책에 의해 북남관계는 파국의 위험에 처해 있다.

동족을 불신하고 적대하며 북과 남이 합의한 공동선언의 리행도 한사코 거부하는 박근혜당의 집요한 동족대결정책에 의해 북남관계는 파국의 위험에 처해 있다.

동족을 불신하고 적대하며 북과 남이 합의한 공동선언의 리행도 한사코 거부

# 감출 수 없는 매국노들의 정체

최근 남조선에서 문창국에 대한 총리후보자 지명을 놓고 각계층의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문창국은 이러한 기회들에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일제의 폐망 후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조선의 분열을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며 정당화하고 일본군의 성노에 문제를 사파받을 필요가 없다고 수작질을 해냈는가 하면 조선민족의 상징은 『개으른 것』이며 자령성이 부족하고 남한에 신세지는 것이라고 혀비단이 돌아가는데로 마구 주절거렸다.

결국 구천에 사무친 40여년간의 일제의 야단적인 식민지통치가 『옹당』하고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근 70년을 헤아리는 민족분열의 고통이 『당연』하며 조선민족

은 다른 민족의 지배속에 사는 것이 『밀연』 적이라는 소리이다. 일고의 흔할 가치도 없는 인간쓰레기의 미친소리를 하겠다. 아마도 자기 민족을 무참히 모독하고 스스로 짓밟는 문창국이와 같은 천일파 국노, 민족반역의 불망나니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하기야 만사람을 경악케 하는 망언들을 해낸 문창국을 놓고 파자 일본군 성노에 피해자 할머니들을 비롯한 남녀인민들과 온 겨레는 물론 주변나라들에서 까지 제2의 리완용, 희세의 미국노로 단죄규탄하고 있으므로 사방에서 총리후보자 지명 철회와 후보자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예로부터 나라도 민족도 모르는 자 미물이라 하였다. 감히 제 나라, 제 민족의 존엄을 서슴없이 팔아먹고

부정하는 사대와 매국, 동족 대결에 찌든 저런 미물같은 것이 총리후보는 고사하고 어찌 이 땅에서 살아숨 쉴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놀랍게도 온 남녘땅이 총리후보로 지명된 문창국의 사대매국적 정체를 두고 분노로 끊어번 지고 있는 오늘 유독 『새누리당』 폐거리들만은 쓸개べき 너두리를 들어놓은 인간 추물을 구구 비호두둔해나서 사람들을 아연케 하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새누리당』 내에서는 『그는 친일이 아니라 극일이고 나라를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푼수없는 나발이 울려 나오는가 하면 『앞으로 성하고 좋게 가자는 뜻이 아니었을까. 악의를 가지고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하며 문창국을 응호하는 궤변들이 계속 울려나왔다.

그런 가하면 『새누리당』은 문창국의 망언을 단죄하고 지명철회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더 올 높아지자 이를 억누르고 입을 막기 위한 유치한 놀음에까지 매달리고 있다. 하다면 명색이 집권여당이라는 『새누리당』이 민심의 저주와 규탄을 받는 인간추물과 같은 문창국을 무력대고 편역들고 비호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이다.

본사기자 서희

『새누리당』은 비록 간판은 여러번 바뀌었지만 력대로 그 뿐리는 친일친미매국에 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야 어떻게 되든 돈과 권력이라면 그 무엇도 서슴지 않는 것이 『새누리당』 일진대 미물이 든 추물들은 속통이 같은 애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한 그 내막을 들여다 보면 『새누리당』으로서는 온 조선의 각계각층이 『일제의 식민지지배가 신의 뜻이라면 문창국사퇴는 국민의 뜻』, 『박근혜는 민족반역자 문창국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가?』고 분노를 터뜨리는데 립지처참을 해도 씨원치 않을 문창국이와 같은 민족반역자를 총리후보로 지명한 남조선당국자는 지명철회나 사파는커녕 입술을 빡 씻고 혀와나들이에 나선 것이다.

파시 『유신』의 피를 물려

받고 사대매국이 유전된 박근혜만이 할 수 있는 뻔뻔스럽고 간특한 처사라 하겠다. 이러한 사실들은 문창국이와 같은 인간추물다위를 총리후보로 지명한 박근혜나 민심의 분노로부터 『문창국 구하기』에 열중하는 『새누리당』 폐거리들이나 다 같이 사대매국과 동족대결로 숨쉬고 진명을 부지하며 민심에는 판계 없이 친일친미파 쇼독제에 물에 거리를 두는 민족의 오물단지, 매국노집단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본사기자 서희



문창국 총리후보자 지명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

한재미동포가 12일 피리국 무총리후보 문창국은 빠져까지 친일반역자라고 비난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글은 박근혜의 인사계는 참으로 한심함을 넘어 절망에 이르고 있다고 규탄하였다.

그런 안목으로 『국회의 원』까지 하였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글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박근혜의 사람고르는 안목

## 친일반역자를 내세운 남조선당국을 비난

었던 말인가?

박근혜가 추천한 문창국이 일본인이름으로 글을 썼거나 같은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일본이 손뼉을 칠 그리고 일본의 대변인으로 작각할 내용이다.

그의 글이나 발언내용들은 그가 조선사람인지 아니면 일본사람인지 의심을 하

게 한다.

글은 문창국이 잡고대 같은 맘발을 하기보다 자기가 게으르고 자립성이 없으면 친일을 한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았다고 솔직히 말하는 것

이 속은 처사일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본사기자 서희

을 보며 빠져까지 친미, 친일, 배죽적인 그가 물러나지 않는다면 이남은 회망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본인이 빠져까지 친미, 친일이다보니 『국무총리』로 내정한 사람조차 친일분자이다.

일본이 조선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 알

고민하는 문창국은 6.25와 관련한 각종 행사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 무슨 『락동강전투승리 기념행사』니, 『전쟁기념관 개관 20주년 행사』니 하는 들판에서도 거북한 『행사』들이 열리는가 하면 외세와 암합한 각종 북침전쟁연습들이 매일과 같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조선전쟁이 미치 공화국의 『남침』에 의해 일어난 것처럼 여론이 오도되고 『잊혀진 승리』니 뛰어난 하는 나발들이 울려 나오는 속에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반공화국 암살을 노린 군사적 공모전략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이것이 조선전쟁을 도발한 저들의 범죄행위를 가리우고 반공화국 대결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내외호전세력들의

불순한 기도의 산물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지난 조선전쟁이 전조선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고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와 세계 폭넓은 영역을 실현하려는 미국의 범죄적 흥기로부터 산생된 침략전쟁이었다는 것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8.15 후 『해방자』의 탈을 쓰고 비법적으로 남조선을 강점한 미국은 전조선을 강점하기 위한 북침전쟁도발책 동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었

다. 남조선군을 전쟁의 대포

방으로 써먹기 위한 군사교

육과 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10억 US\$에 달하는 막대한 군

사원조와 수많은 무장장비

들을 남조선군에 제공하고

38° 선일대에서 무장도발행

위들을 끌어들이고 감행하도록

하였다. 여전히에 오도되고

『잊혀진 승리』니 뛰어난 하는 나발들이 울려 나오는 속에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반공화국 암살을 노린 군사적 공모전략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이것이 조선전쟁을 도발한 저들의 범죄행위를 가리우고 반공화국 대결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내외호전세력들의

불순한 기도의 산물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지난 조선전쟁이 전조선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고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와 세계 폭넓은 영역을 실현하려는 미국의 범죄적 흥기로부터 산생된 침략전쟁이었다는 것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8.15 후 『해방자』의 탈을 쓰고 비법적으로 남조선을

강점한 미국은 전조선을

강점하기 위한 북침전쟁도발

책 동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었

다.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이

북침전쟁으로 인해 다치면

터질듯 한 위기국면에 놓여있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남조선군부호전세

력들은 백령도와 대연령도를 비롯한 조

선서해 5개 섬 일대에서 총포를 쏘아대

고 공화국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힘들

는 혼란의 발로이다. 이것이 제2의 조선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한 엄중한 도발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이 『서북도서는 북

의 목을 노리는 비수와 같은 전략적 유통

총지』라고 떠들며 백령도를 서해 5개

섬 일대에 북침선체계를 노린 대함유

도무기, 지대 광미싸일, 신형 대포포병 페

이다. 『스파이크』형 미싸일 등을 비롯한

공격기술 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

려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사실들은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이 북침전쟁의 서막을 바로 서해지역에서부터 열려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불을 좋아하는 부나비는 불에 타죽기 마련이다.

단일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이

군사적 도발에 매달린다면 서해는 곧

도발자들의 최후무덤으로 될 것이다.

김철호

## 북침전쟁의 서막을 열려는가

백령도가 위치한 서해 5도지역이 북남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가장 침에 한 지역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은 불법

비법의 유령선인 『북방한계선』을 고집하며 서해상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무장충돌사건들을 일으켜 이 지역정세를 최대로 긴장시켰다.

더우기 2013년 11월 연평도 포격사건

은 다른 민족의 지배속에 사

는 것이 『밀연』 적이라는 소리이다. 일고의 흔한 가치도 없는 인간쓰레기의 미친소리를 하겠다. 아마도 자기 민족을 무참히 모독하고 스스로 짓밟는 문창국이와 같은 천일파 국노, 민족반역의 불망나니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하기야 만사람을 경악케 하는 망언들을 해낸 문창국을 놓고 파자 할머니들을 비롯한 남녀인민들과 온 겨레는 물론 주변나라들에서 까지 제2의 리완용, 희세의 미국노로 단죄규탄하고 있으므로 사방에서 총리후보자 지명 철회와 후보자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군사적 긴장이 최대로 높은 열

점지대에 방대한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더 많은 군사장비들을 끌어들여

임의의 시각에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려

## 특등매국노에게 가장 엄한 극형을

남조선에서 총리후보로 내정된 문창국이라는자가 우리나라의 분별자이며 『하느님의 뜻』이었다는 개수작을 쳐쳤는데 정말 피가 거꾸로 솟구친다.

그자에게는 근 70년에 달하는 민족분별로 하여 당하는 우리 겨레의 불행과 고통이 보이지 않는 단 말인가. 그자의 혈관속에 흐르는 피는 도대체 어느 민족의 피란 말인가.

문창국이 지난 기간 말마다 『하느님의 뜻』을 걸고들며 미국이 일으킨 전쟁까지도 『하느님이 미국을 불잡기 위해 주신 것이다.』고 맹발했다

니 그의 풀수에 무엇이 꽉 들어차있는

## 친일매국노를 일보장에 네버리자

지금 북파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남조선의 종리후보로 나선 문창국이라는 놈이 감히 우리 조선민족을 두고 『제으로 차림성이 부족하며 남한에 신세지기 좋아하는 민족』이니 하다 못해 일제의 식민지지배와 국토분열로 『하느님의 뜻』이라고 반민족적 맹발을 늘어놓았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망언중에 이런 망언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국도의 민족배타주의에 사로잡혀 인류를 불바다속에 던지라고 고함을 지

## 개보다도 못한 인간추물

나라없는 백성의 신세는 상가집개만 도 못하다고 했다. 일제식민지통치의 40여년은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맡그대로 삼가집개신세만도 못한 노예의 처벌한 40여년이었다. 반만년의 유구한 혁명사와 찬란한 문화를 사랑해온 우리 민족이 미개해서 일본에게 지배당했는가. 일본이 선심을 베풀어서 『합병』의 죽쇄를 채웠던가.

일본은 철두철미 총칼과 대포를 휘둘러 우리에게서 나라를 빼앗았었다. 그리고 잔인무도한 식민지통치를 40여년이나 실시했다. 그로 인한 피해와 고

통은 아직도 우리 민족모두에게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다.

그런데 뭐 『하느님의 뜻』이라고, 일본으로부터 『위안부문제를 사파받을 필요가 없다』고!?

문창국이야말로 나라팔아먹은 리완용이 하듯 다를바 없는 특등친일매국노이고 개보다도 못한 인간추물중의 추물이다.

오늘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열렬한 애국심과 백성을 위한 투쟁 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조선속도창조를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마식령속도》 창조의 불길 속에 천연수림지 대인 마식령에 세계적인 스키장이 건설되며 올해에는 새로운 속도창조로 세계일류급의 아이들의 궁전인 송도원 국제소년단아영소와 세상에 둘도 없는 로동자들, 현대적인 수산기지를 비롯하여 온 나라에 대규모 건축물들과 생산기지들이 련이어 일떠서 고 있다.

얼마전 군인건설자들은 대소한의 강추위와 폭설 속에서 세찬 바람과 싸우며 화약에 불이 달린 것처럼, 폭풍처럼 내달려 몇년이 걸려야 한다는 조선인민군 1월 8일 수산사업소 건설을 짚은 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홀륭히 완공하였다.

조업을 앞둔 수산사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이곳 수산사업소 건설을 발기한 때로부터 불과 2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방대한 공사파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조업을 눈앞에 둔 것은 놀라운 기적이며 이것이야말로 조선속도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전국의 육아 세워가는 군대와 인민의 투쟁정신을 뿐만 아니라 주고 있다.

남들이 열걸음 백걸음에 이룬것을 단 한걸음을 내짚으며 비약하는 공화국의 단숨에의 정신, 조선속도는 비단 이곳에서만 창조된것이 아니다.

지난해 마식령스키장 건설을 끝내고 즉시에 송도원 국제소년단아영소 개건공사에 진입한 군인건설자들은 겨울철의 불리한 조건속에서도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으므로써 이곳에서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높이

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 학원, 양로원들에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조선인민군 1월 8일 수산사업소가 현대적인 항만시설들은 물론 수산물생산과 어로공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을 최상의 수준에서 갖춘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사랑찬 창조물로 홀륭히 일떠섰다.

이것은 령도자의 구상과

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발들어 이 땅에 조선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탁원을 일떠

세워가는 군대와 인민의 투쟁정신을 뿐만 아니라 주고 있다.

남들이 열걸음 백걸음에 이룬것을 단 한걸음을 내짚으며 비약하는 공화국의 단숨에의 정신, 조선속도는 비단 이곳에서만 창조된것이 아니다.

지난해 마식령스키장 건설을 끝내고 즉시에는 송도원 국제소년단아영소 개건공사에 진입한 군인건설자들은 겨울철의 불리한 조건속에서도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으므로써 이곳에서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였다. 세상에 둘도 없는 로동자 합숙을 일떠세울 일념으로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 달려온 군인건설자들도 지난해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 달려온 군인건설자들도 지난해

로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건설장과 위성과학자

거리건설장, 청천강계단식발

전소건설장을 비롯한 대고조

전투장들마디에서도 조선속

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

펴올리고있다.

지금 공화국은 령도자의

두리에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조선속도를 창조하며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마식령속도》 창조열풍으로 동해의 어

장이 들끓었다면 올해에는 조선속도창조투쟁으로 몽금포중심어장을 비롯한 서해의 어장이 동해에 울려퍼진 만풍가에 풍어기로 화답하고 있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 세차게 휘몰아치고 있는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은 조국산천을 더욱 아름답게, 현대적으로 변모시키고 경제발전을 힘있게 추동하고 있다.

지금 공화국은 령도자의

두리에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조선속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본사기자 최대성



5월 1일 경기장 개간보수공사가 힘있게 진척되고 있다.

## 북녘사회가 가진 사랑의 힘

봉사기자 최대성

평양에서 4주이상 머물면서 각계각층 파의 만남을 통해 그리고 이 사회의 다양한 곳들을 관찰하면서 느낀 북녘사회는 한마디로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하고 싶다.

서방세계 사람들은 특히 미국과 가까운 나라들의 국민들은 북녘 사람들을 고약하고 애민한 사람들이라고 꼬집으며 미개하다고 혹평해 왔지만 북녘 사람들은 실제 그들의 지적파는 판이하게 다른 사람이다.

북녘동포들은 자존심이 강하고 사랑이 넘쳐나고 개명된 사람이다. 이들은 인생관을 어떻게 정립해야 하며 어떤 삶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보람찬 생애라는 것을 각 방면에서 교양 받았다.

북녘의 언론매체들은 그 어느것을 접해도 삶의 지표를 제시한다. 북녘의 조선중앙TV방송은 그 프로그램들 내용 자체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나가기 위한 교양이다.

령도자의 인민 사랑, 인민

들의 령도자에 대한 사랑과 흡모 등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사랑의 이야기들로 꽂을 꾸우는 것이 북녘의 언론매체들의 사명과 역할이다. 이것은 정치에 국한된것 만이 아니다. 경제, 사회, 외교, 군사, 교육, 체육, 문화 등 사회전반에도 사랑의 철학이 기둥을 이룬다.

나는 한달간 북녘기간을 통하여 북녘사회가 가지고 있는 힘은 핵무기보유나 미국 까지 날라가는 무장력을 갖췄다는 국방력보다는 북녘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힘이 그 무장력보다 수수께끼 강한 저력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바로 그 유산을 조금도 손상하지 않고 그대로 물려받아 이민위원회의 유훈정치를 한치의 드림없이 정실하게 실천해나가시는 새 지도자가 김정은령도자이시라는 사실도 퍼부로 느낄수 있었다.

북녘동포들은 그 그이에 대해 하나님과 사랑의 지도자라고 부르면서 군사, 정치, 경제, 사회, 음악에 술 등 전반적인 방면에도 도통한 령도자이시라고 칭송하고 있다.

북녘사회는 그 어느때보다도 일심단결을 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 음악에 술공연장에 나타나시면 관객들은 눈물을 훔쳤다.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배

경화면에 북녘의 령도자들이

등장하면 여기저기서 눈물을 닦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북녘동포들은 그 배경화면에 김정은령도자께서 나라나시면 언제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였다.

소학교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어도 그렇고 중학교 학생들이나 대학생들과 대화를 나눠도 령도자의 인민 사랑, 인민의 령도자에 대한 흡모와 사랑은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북녘사회 분위기는 군인들, 로동자들, 농민들 그리고 일반공무원들의 경우에도 령도자-당-군민이 완전히 하나였다. 그 바탕에는 모두 사랑이 깔려있었다.

그 사랑도 때묻지 않았다. 순수했다.

이같이 북녘사회가 사랑으로 풍려진 일심단결의 사회라는 사실을 이번 방북에서는 너무나 실감나게 체험하는 계기를 가질수 있었다. 북녘동포들은 그 그이에 대해 하나님과 사랑의 지도자라고 부르면서 군사, 정치, 경제, 사회, 음악에 술 등 전반적인 방면에도 도통한 령도자이시라고 칭송하고 있다.

(『민족통신』에 실린 글에서)

## 전반적 무상치료제와 의사당당구역제

주제 42(1953)년 1월부터 공화국에서는 전반적 무상치료제가 실시되어 모든 주민들이 병치료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고 생활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인민 사랑의 정체에 의하여 가령처럼 전쟁의 포화속에서 마련된 전반적 무상치료제는 60여년의 년륜을 아로새기고 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혈육들이 모여사는 한가정 안에 언제 칼부림을 당하고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불안과 공포가 떠돌고 부모형제, 처자들 사이의 따뜻한 사랑마저 사라져버리는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것은 우리 공화국이 가정과 사회의 행복을 지켜주는 보금자리라는 진리이다.

본사기자 김춘경

어디에나 병원, 진료소들이 활동해 꾸려져 있어 사람들의 건강을 정상적으로 보살펴주고 환자들이 생기면 제때에 치료대책을 세워준다.

의사들에 대한 친찰로부터 검사, 진단, 치료 등이 다 무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에도 입원비, 약값 등은 모두 국가에서 부담한다.

공화국의 의사당당구역제는 의사가 일정한 주민세대에 맡아 그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사회주의 예방 의학의 본성적 요구에 맞는 가장 우월한 주민건강 관리제이다.

의사당당구역제는 호담당제와 직장(정)당당제로 나누며 근로자들은 가정에서는 호담당당의 사로부터, 일터에서는 호담당(정)당당의 사로부터 의료봉사를 받는다.

본사기자

였다. 외국의 관광객들 속에서 태권도 모국인 우리 나라에 대해서 태권도를 배워 선수들로 경기를 진행하고 모내기, 김매기, 파일파기 등을 하는 다양한 로동을 체험하는 관광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우리 나라에 대한 투자와 협업 합작에 관심을 가지는 관광객들에게 유관기관들과 기업체들과의 면담과 투자에 상담, 설명회 등을 조직해주는 관광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밖에 자전거관광, 열차관광, 궤도전차, 무궤도전차, 지하철도를 비롯한 시내 교통수단을 이용한 관광 등 말그대로 관광종류가 많다.

우리는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의 다양한 관광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해 새롭고 특색있는 관광들을 더 많이 개발하여 그들에게 최대한의 즐거움과 만족감을 안겨주도록 하겠다.

기자: 좋은 이야기를 들려 주어 감사하다. 앞으로의 사업에서 더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판이 위주로 되어있다면

들이 호텔이 아니라 아예에 천막을 치고 애영 생활을 하면서 동산을 하고 있다.

기념비적 건축물들과 묘향산의 보현사를 비롯한 령사 유적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와 오늘날에는 문화관광, 체육관광, 건축관광, 동산관광 등 다양한 관광 유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혁명가들과 교향악, 교예 공연을 비롯한 예술 공연 관람, 령사박물관과 민속박물관, 미술박물관을 둘러보는 명승지들에 흥미를 품고 있는 령사와 문화에 흥미를 가지는 외국의 관광객들이 좋아하고 있다.

명승지들에 대한 동산관광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전에는 동산에 호가들이 명승지들을 말을 들었다.

김영일: 지난 시기에는 관광이라고 하면 도시들과 령사 유적, 명승지들에 대한 참

민족의 전통문화와 오늘날에는 문화관광, 체육관광, 건축관광, 동산관광 등 다양한 관광 유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체육관광 열기가 높아가는 속에 올해 4월에 있은 국제 장관 런던 맨체ster 27차 만경대상 마라톤 경기에는 200여명의 마라톤에 호가들이 참가하

## 가정에=비낀=두=모습을=두고

서 삶의 보람과 영예를 찾고 그 길에 참다운 행복도 있다는 고상한 품으로 맷어진 가정의 사랑이고 행복의 기에 그 모습은 더욱 아름답게 보인다.

하나의 대가정으로 사는 학부모 우리 공화국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거울로 되고 있다.

여성의 자랑과 영예를 찾고 그 길에 참다운 행복도 있다는 고상한 품으로 맷어진 가정의 사랑이고 행복의 기에 그 모습은 더욱 아름답게 보인다.

하나의 대가정으로 사는 학부모 우리 공화국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거울로 되고 있다.

여성의 자랑과 영예를 찾고 그 길에 참다운 행복도 있다는 고상한 품으로 맷어진 가정의 사랑이고 행복의 기에 그 모습은 더욱 아름답게 보인다.

하나의 대가정으로 사는 학부모 우리 공화국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거울로 되고 있다.

여성의 자랑과 영예를 찾고 그 길에 참다운 행복도 있다는 고상한 품으로 맷어진 가정의 사랑이고 행복의 기에 그 모습은 더욱 아름답게 보인다.

하나의 대가정으로 사는 학부모 우리 공화국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거울로 되고 있다.

여성의 자랑과 영예를 찾고 그 길에 참다운 행복도 있다는 고상한 품으로 맷어진 가정의 사랑이고 행복의 기에 그 모습은 더욱 아름답게 보인다.

하나의 대가정으로 사는 학부모 우리 공화국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거울로 되고 있다.

여성의 자랑과 영예를 찾고 그 길에 참다운 행복도 있다는 고상한 품으로 맷어진 가정의 사랑이고 행복의 기에 그 모습은 더욱 아름답게 보인다.

하나의 대가정으로 사는 학부모 우리 공화국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거울로 되고 있다.

여성의 자랑과 영예를 찾고 그 길에 참다운 행복도 있다는 고상한 품으로 맷어진 가정의 사랑이고 행복의 기에 그 모습은 더욱 아름답게 보인다.

하나의 대가정으로 사는 학부모 우리 공화국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거울로 되고 있다.

여성의 자랑과 영예를 찾고 그 길에 참다운 행복도 있다는 고상한 품으로 맷어진 가정의 사랑이고 행복의 기에 그 모습은 더욱 아름답게 보인다.

하나의 대가정으로 사는 학부모 우리 공화국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거울로 되고 있다.

여성의 자랑과 영예를 찾고 그 길에 참다운 행복도 있다는 고상한 품으로 맷어진 가정의 사랑이고 행복의 기에 그 모습은 더욱 아름답게 보인다.

하나의 대가정으로 사는 학부모 우리 공화국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거울로 되고 있다.

여성의 자랑과 영예를 찾고 그 길에 참다운 행복도 있다는 고상한 품으로 맷어진 가정의 사랑이고 행복의 기에 그 모습은 더욱 아름답게 보인다.

하나의 대가정으로 사는 학부모 우리 공화국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거울로 되고 있다.

여성의

# 일 요 일 의 대 동 강 밤



평양의 첫 출기이며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비껴담고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 그 경치 하도 뛰어나 옛날 외국의 한 사신이 『천하제일강산』이라는 별글까지 남긴 일화를 전하는 대동강반이 오늘은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훌륭히 꾸려져 가는 곳마다 기쁨과 즐거움에 넘친 사람들의 웃음소리 흘러넘친다. 풍치수려한 대동강반과 평양시민들의 여름철생활은 뛰어야 뛸 수 없이 이어져 있다. 일요일의 대동강반은 해저 무는 줄 모른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흥법식

## 계의적인 호상관계

◆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남에게 폐질 있게 대하고 좋게 말해야 그만한 대접을 받는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

◆ 『가는 방망이 오는 흥두깨』

이편에서 방망이로 치면 저편에서는 그보다 몇배나 큰 흥두깨로 때린다는 뜻으로 남을 해치면 그보다 몇배 더 한 보복이 돌아온다는 것을 비겨이르는 말.

◆ 『고슴도치도 재 새끼가 험함하다면 좋아한다.』

고슴도치새끼는 털가시가 세계 돌아나서 곱다고 할것이 못되나 그래도 곱다고 칭찬하면 어미는 좋아한다는 뜻으로 누구나 자그마한것이라도 칭찬해주면 다 좋아한다는 것을 비겨이르는 말.

◆ 『곰게 살면 갈음받을 날이 있다.』

바른 양심을 가지고 똑바르게 살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뜻.

◆ 『먹은 덕으로 대하고 원쑤는 원쑤로 대한다.』

공정하고 도리에 맞게 선의를 표시하는 사람은 선의로 대하고 원주는 원쑤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이르는 말.

본사기자

조선민요는 선률이 유순하고 리고 있다.

아름답고 우아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할뿐 아니라

깊은 정서로 감동을

자아낸다.

조선민요는 선률

형식에서 우리 거례의 높은 음악

리듬이 다양하고 풍부하며 고

발전의 바탕으로 더욱 아름답게

꽃펴나고 있다.

조선민요는 민족음악

발전의 바탕으로 더욱 아름답게

꽃펴나고 있다.

조선민요는 민족적인 멋을 더욱

잘 살려낸다.

조선말의 특성에 맞게 곡조의 민족적이며 통속적인 가창도 잘 살려낸다.

오늘 공화국에서

조선민요는 민족음악

발전의 바탕으로 더욱 아름답게

꽃펴나고 있다.

본사기자

## 국과 왕의 차이점

◆ 많은 경우 국은 한두 가지 단순한 음식감을 쓰나 향은 여러 가지 음식감을 쓴다.

◆ 가공방법에서도 서로 다르다.

국은 국거리를 일정한 모양으로 잘

게 썰지만 향은 음식감들을 국거리로

다 긁고 큰 토막형, 편형 등 다양한 형태로 썰어 쓰거나 다져서 둉어리모양으로 만들어 쓴다.

경우에 따라서 음식감을 통것으로 쓰기도 한다.

◆ 국은 국물이 많고 주로 밥과 같이 내지만 향은 국물이 적고 빠르고 많이 쓴다.

본사기자

## 탕 평채의 유래

글 김복련, 그림 김윤일

(1)

탕 평채의 유래

글 김복련, 그림 김윤일

사화

탕 평채의 유래

글 김복련, 그림 김윤일